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동향 및 전망

박나리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nrpark@kiep.go.kr, Tel: 044-414-1096)

차 례 ● ● ●

1.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
2.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이
3. 최저임금 인상 원인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4년 11월 13일,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100달러에서 128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 노동자문위원회에서 인상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부 측이 제안한 123달러가 가장 높은 득표수를 얻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5달러 추가된 128달러로 인상하도록 최종 발표함.
- ▶ 2013년 이후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폭의 확대 및 가속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013년 31%, 2014년 25%, 2015년 28% 증가하였으며, 2015년 최저임금은 2012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인상목표를 넘어서는 수치임.
 - 캄보디아의 최저생활비 상승과 함께 도시화의 하향안정세 및 외국인투자 유입의 급상승에 따라 임금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
 - 시장 개방 및 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정부 정책이 노동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노조 측이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함.
- ▶ 향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기업은 이를 감안한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8년까지 160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인상이 예상됨.
 - 최저임금 급상승 및 시위·파업 피해로 인해 섬유봉제업 투자와 수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미국·유럽 등 대외수요 증가와 임금인상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태도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최근 주요 주변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고 있고 현재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기진출 기업들의 공장 이전 및 철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캄보디아 진출기업들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강화전략을 마련하고 노무관리 전략을 개선해야 함.
 - 한국기업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임금 및 인프라에 대한 주변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함.

1.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

■ 2014년 11월 13일,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100달러에서 128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의 정부와 사용자, 노동계 대표들이 각각 제안한 인상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부 대표가 제안한 123달러가 가장 높은 득표수를 얻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123달러에서 5달러 추가된 128달러로 인상하도록 최종 발표함.¹⁾
- 5달러 추가 인상은 일부 노동계 위원들의 친정부 성향으로 140달러 인상안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노동계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 총 28명의 위원 중 정부 측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123달러 인상안이 16표를 획득하였고, 뒤이어 사용자의 110달러 인상안에 7명, 노동계의 140달러 인상안에 2명이 투표함(그림 1, 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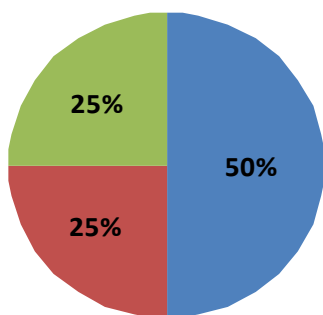
■ 이번 인상안은 2014년 6월 노동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절차를 개선하고자 인상 시기를 매년 1월 1일로 정례화한 이후 최초의 인상안임.

- 위원회는 매해 3/4분기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를 시작하여 4/4분기에 최종 인상안을 결정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당 안을 반영하기로 함.
- 과거 부정기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가능했던 환경을 개선하고, 2013년 말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자 정례화가 요구되었음.

그림 1. 노동자문위원회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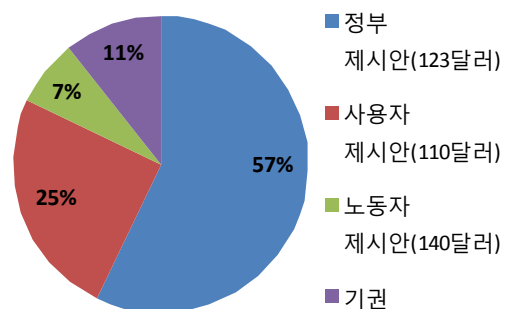
■ 정부 대표 ■ 사용자 대표 ■ 노동자 대표



자료: Cambodia Daily(2014)를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2.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별 득표율

(단위: %)



자료: Phnom Post(2014)를 토대로 필자 작성.

1)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섬유봉제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측 14명, 사용자 단체인 중 7명, 노동조합 관계자 중 7명 등 3자 대표로 구성된 노동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의 시행령을 통해 발표됨.

■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매해 초로 정례화함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노동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9~10월, 프놈펜 시내에서 기존 100달러에서 177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위가 발생함.
- 이후 노동계는 177달러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140달러 인상안을 노동자문위원회에 제안함.
- 사용자 대표 측은 노동자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110달러 인상안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부 대표는 양측 의견을 고려하여 123달러의 인상안을 제안함.

■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은 비단 2015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2013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인상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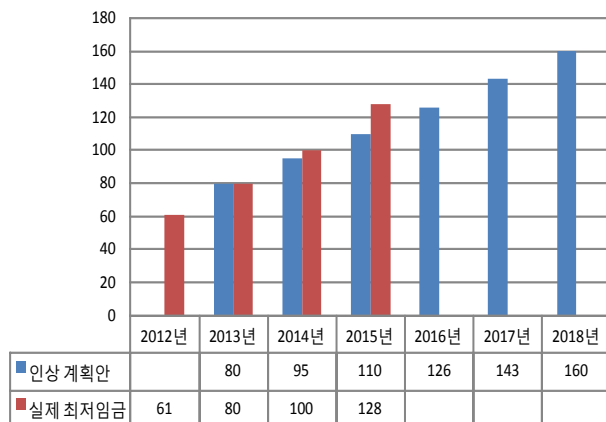
- 2010년 훈센 총리는 최저임금을 기존 50달러에서 61달러로 인상하고 향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이후 노동자 파업이 급증하며 2013년부터 최근의 임금 상승 현상이 시작됨.

2.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인상 추이) 2013년 이후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폭의 확대 및 가속화가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013년 31%, 2014년 25%, 2015년 28% 증가하였으며, 2015년 최저임금은 2012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인상목표를 넘어서는 수치임(그림 3, 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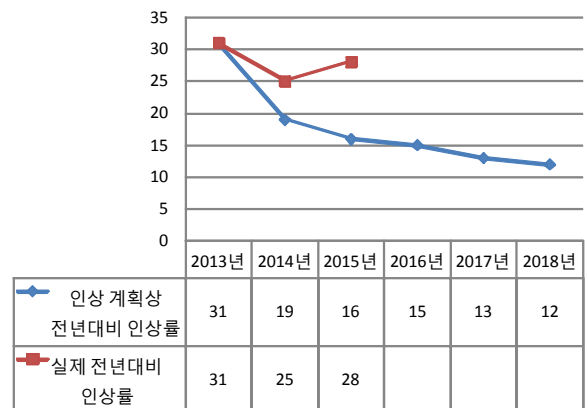
그림 3. 최저임금 인상계획 및 실제 최저임금 비교
(단위: 달러)



주: 인상계획안은 2013년 12월 24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상기 금액은 수습기간(1~3개월)을 마친 근로자에 해당함.

자료: Labor Advisory Committee(2013), "Statement of Labor Advisory Committee (December 24)" 를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4. 최저임금 인상계획상 인상률 및 실제 인상률 비교
(단위: %)



주: 인상계획안은 2013년 12월 24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상기 금액은 수습기간(1~3개월)을 마친 근로자에 해당함.

자료: Labor Advisory Committee(2013), "Statement of Labor Advisory Committee (December 24)" 를 토대로 필자 작성.

- (2012년 부가임금 인상) 2012년 1월 캄보디아 정부는 섬유봉제업체들이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인 보건수당(5달러)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뒤, 같은 해 9월 숙박교통 지원금(7달러) 지급과 만근수당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부가임금을 인상함.
 - 정부는 2010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추가적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최저임금 명목의 임금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부가임금을 인상함.
- (2013년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2013년 3월 최저임금이 80달러로 인상되었으나, 노동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7월 총선 이후 야당과 연대한 대규모 시위로 정부에 압박을 가함.
 - 정부는 기존의 61달러에서 14달러를 인상하고 보건수당인 5달러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80달러의 최저임금을 발표함.²⁾
 - 그간 보건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가 2013년 3월 발표를 통해 보건수당 5달러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높이고자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160달러 인상 요구 및 파업 강행이 계속되었으며,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cure Party)이 지지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대규모 연합 시위가 발생함.
 - CNRP가 2013년 7월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결과에 불복한 것이 연합 시위의 배경이 됨.
 - 총선에서 혼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CNRP는 선거인 명부상 유권자 중 15%에 해당하는 약 120만 명의 명단이 허위 기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3년 9월 23일 의회 개원식에 CNRP 소속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함.³⁾
- (2014년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25% 인상한 100달러로 발표하고, 이를 2015년 110달러, 2016년 126달러, 2017년 143달러, 2018년 16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힘.⁴⁾
 - 2013년 12월 정부는 2018년까지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인 최저임금 160달러를 달성하겠으며, 2014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위가 계속됨.
 - CNRP와 노동계는 즉각적인 최저임금 160달러 인상을 주장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파업으로 발생된 비용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를 호소하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함.
 - 2014년 1월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시위대와의 유혈충돌로 인해 5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노동자 23명이 연행됨에 따라 정부 및 사용자와 노동자 간 관계가 악화됨.
 - 유혈충돌사태 발생 이후 노동계는 지속적인 시위 참여 입장을 밝혔고, 2014년 5월 1일 노동절에도 시위가 재점화되며 긴장 상태가 계속됨.

2) Labor Advisory Committee(2013), "Statement of the Labor Advisory Committee." (March 29)

3) CPP가 과반수의 의석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82석(총 의석수의 2/3)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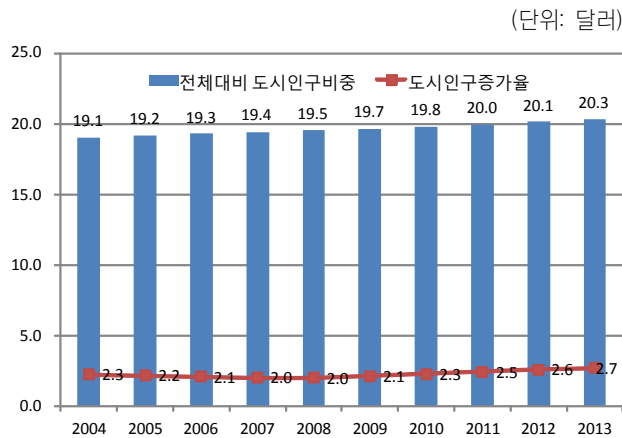
4)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2013), "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 (No. 317)

3. 최저임금 인상 원인

■ (거시경제) 캄보디아 경제는 2010년 이후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최저생활비가 크게 상승했으며, 도시화의 하향안정세 및 외국인투자 유입의 급상승에 따라 임금인상의 압박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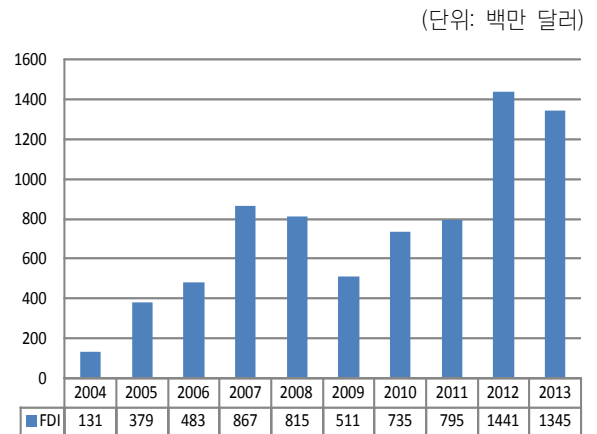
-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13년간 2.9~5.5%를 유지하며 안정적이었으나,⁵⁾ 2011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성장하며(2013년 캄보디아 부동산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15% 상승⁶⁾) 프놈펜 지역의 최저생활비도 크게 상승하였음.
- 2013년 노동자문위원회 작업반(Working group)은 섬유봉제업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157~177달러로 발표하였음.
- 특히 훈센 총리가 2013년 총선 전후로 지지율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의 임금을 인상 조치하여 물가상승 압박으로 이어짐.
- 캄보디아의 도시인구 비중은 2013년 20.3%로 2004년 19.1% 이후 사실상 정체상태이며, 연평균증가율도 2.3%로 낮아 노동력 수급이 어려움(주변국가보다 도시화 속도가 느림, 그림 5 참고).
- 도시인구증가율의 하향안정세와 함께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며 다수의 봉제공장이 설립됨에 따라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함(그림 6 참고).

그림 5. 캄보디아 도시인구 비중 및 도시인구증가율 추이(2004~12년)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6.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 (2004~12년)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토대로 필자 작성.

5) IMF(2013), "Cambodia: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6) KOTRA(2014), 「캄보디아 프놈펜 부동산시장 현황과 건축자재 수요 증가」, 해외시장정보(<http://www.globalwindow.org/>).

■ (노동자 측)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 및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과거에는 1970년대 후반 ‘킬링필드’로 알려진 크메르루즈 정권의 대학살을 경험한 세대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 및 표현 수단이 부재했음.
- 최근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정보 수집을 통해 권리의식을 강화하고 파업 및 시위 등의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었음.
- 이에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 공장 내 노조가 전무했던 상황과 달리 2014년 ILO가 모니터링한 섬유봉제공장 중 71%의 공장이 1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보유함.⁷⁾
-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를 통해 해결된 노동쟁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45건에서 2013년 285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표 1 참고).⁸⁾

표 1. 캄보디아의 노동쟁의 해결건수 추이(2010~13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동쟁의 해결건수	145건	191건	255건	285건

자료: Arbitration Committee(2013), *Annual Report 2013*, p. 1.

■ (정부 측) 정부 정책이 시장개방에 따라 노동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함.

- 훈센 총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근간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으며, 투자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정책 개선이 필요했음.
- 1997년 노동법과 2002년 사회복지법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으며, 이후 200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함.⁹⁾
- 2001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정기적인 노동환경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시민단체가 캄보디아에 진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요구가 높아졌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노선의 변화가 시작됨.

■ (야당) 정부 정책이 노동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던 데는 야당의 정치적 압박도 크게 작용함.

- 친노동자적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는 야당은 2013년 총선에서 여당과의 정책상 차이점을 부각하여 지지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여당에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함.
- 이전 세대는 훈센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나 청년층의 경우 현 정부의 부정부패 및 인권문제를 자각하여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야당의 지지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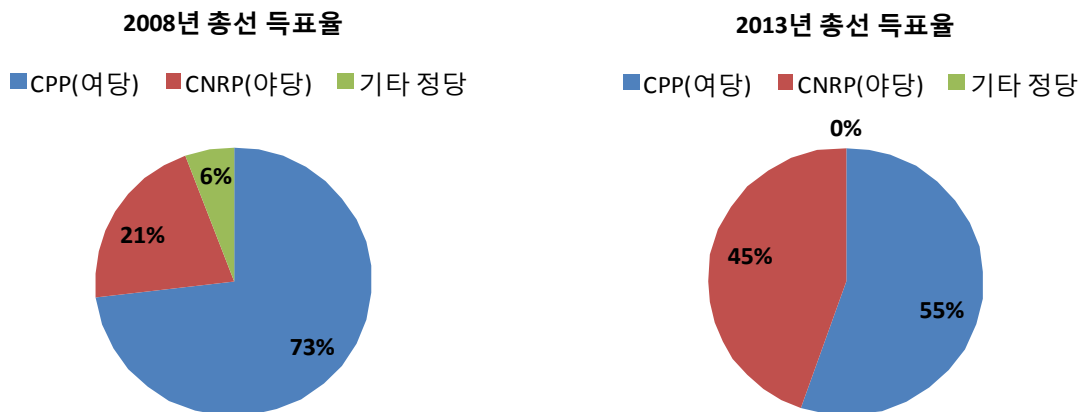
7) ILO(2014), *Thirty First Synthesis Report on Working Conditions in Cambodia's Garment Sector*, p. 8.

8) 2013년 기준, 전체 노동쟁의 해결건수 중 80%가 섬유봉제 분야에 해당함.

9) Veasna Nuan, Melisa Serrano(2010), *Building Unions in Cambodia: History, Challenges, Strategies*, p. 19, p. 45.

- 2008년 총선에서 여당인 CPP가 123석 중 90석을 차지했으나 2013년 68개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반면 야당인 CNRP는 2008년 총선에서 26석을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55석으로 선전함(그림 7 참고).
- 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정부는 친노동자 정책으로 선화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며, 2014년 8월 CNRP가 국회에 등원하여 연립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노동자 친화적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추진이 가능했음.

그림 7. 2008년 및 2013년 정당별 총선 득표율 비교



자료: 현지 언론자료 토대로 필자 작성.

■ (노조)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조들이 이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함.

- 2012년 지방선거에서 노조가 세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파업을 조직하기도 했으며,¹⁰⁾ 2013년 총선에서도 야당과 연합 시위를 통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함.
- 캄보디아 노조는 노총(Confederation) 9개를 주축으로 62개 연맹(Federation)이 있으며, 각각 친정부(여당), 반정부(야당), 중립 등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경쟁구도를 구축하고 있음.¹¹⁾
 - ‘Cambodian Confederation Trade Union’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의 노총으로 알려졌으며, 섬유봉제노조연맹 ‘Coalition of Cambodia Apparel Worker Democratic Union(CCAWDU)’이 소속된 ‘Cambodian Confederation of Unions’가 반정부 성향의 노총으로 알려짐.
- 따라서 각 정당이 노조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지지기반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노조들은 이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음.
- 노동자문위원회의 노조 대표 7명 중 반정부 성향인 ‘CCAWDU’와 ‘Free Trade Union of Workers of the Kingdom of Cambodia’ 측 2명이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 투표결과에 불만을 표시하여 정부가 추가 5달러 인상을 발표함.

10) 노사발전재단(2013),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공전략』, pp. 98~99.

11) *Ibid.*

4. 전망 및 시사점

가. 캄보디아 최저임금 전망

- 2015년 최저임금이 목표 인상액이었던 110달러를 초과하여 128달러로 책정된 바, 2018년까지 160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 노동자들이 2015년도 인상안에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18년 이전에 160달러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동자 측은 최초로 177달러 인상안을 주장한 바 있음.

- 현재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대립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2013년 말~2014년 초보다는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 및 유혈충돌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4월 훈센 총리와 야당 대표가 만나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ttee) 감사 및 2018년 조기 총선 실시에 합의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함.
 - 야당 동조하에 섬유봉제업 노동자들의 연합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던 점에 비추어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재할 경우 대규모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 최저임금 급상승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위 및 파업 피해로 인해 저임금을 활용한 섬유봉제업 투자와 수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보다는 미국 및 유럽 등의 대외수요 증가와 임금인상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태도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2015년 인상안 발표 후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매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주변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시위재발 우려가 있어 해외 주문물량 감소 및 공장 폐업 가능성을 경고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2013년 섬유봉제 부문 수출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2014년 1~8월 섬유봉제 부문 수출이 39억 2,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였음.¹²⁾
 - 향후에도 대외수요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 및 투자가 증가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함.
 - 2014년 10월 H&M, 인디텍스, 프리맥스 등 유럽계 바이어 측은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제품단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 해외 바이어 측은 최근 노동자 시위에서 해외 바이어 대상의 비난 수위가 높아져 국제 여론을 의식하고 있으며, 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품 수급 불안정을 더 우려하고 있음.

12) Global Insight(2014), "Annual Minimum-Wage Negotiation in Cambodia to Increase Protest and Strike Risks, but Widespread Violence Unlikely," *IHS Global Insight Daily Analysis*.

나.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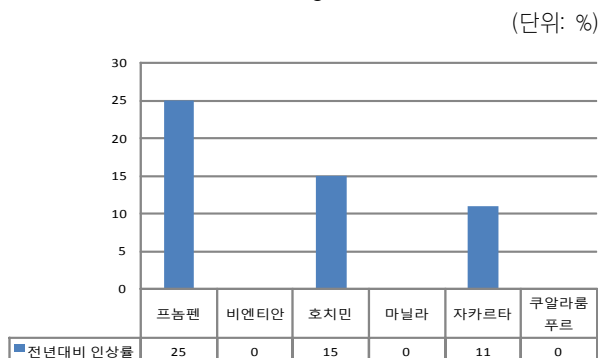
■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의 파업과 시위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저임노동력을 타깃으로 진출한 기업들에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 바이어들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을 지지함에 따라, 추후 제품단가 조정이 실현될 경우 생산비 부담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며, 제품단가의 충분한 조정이 없다면 생산성 증대를 통해 비용을 감축하는 것이 관건일 것임.

■ 최근 주요 주변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고 있고 현재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기진출 기업들의 공장 이전 및 철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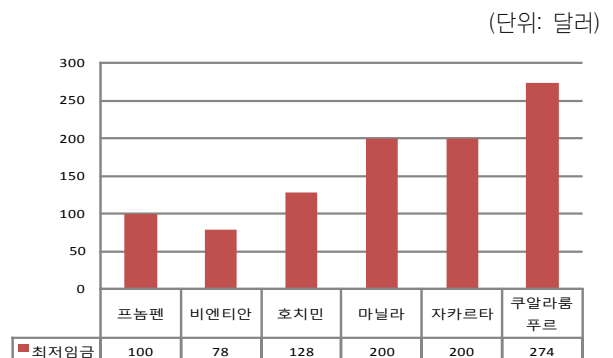
- 2014년 동남아 주요도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프놈펜이 25%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호치민이 15%, 자카르타가 11%를 기록함(그림 8 참고).
- 그러나 이미 중국과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격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¹³⁾ 아직까지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이 동남아 주요도시보다 낮은 수준임(그림 9 참고).
- 2015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0% 내외로 예상되고 호치민의 경우 15% 인상이 결정되는 등 주변국의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 최저임금이 프놈펜보다 낮은 비엔티안의 경우 노동력부족 문제가 있고 미얀마는 최근 최저임금법 제정 후 최저임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의 제도 및 생산 인프라가 캄보디아보다 열악한 상황임.

그림 8. 2014년 동남아 주요도시의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4), 『アジア・オセアニア主要都市地域の投資関連コスト比較』, 현지 언론자료.

그림 9. 2014년 동남아 주요도시의
월 기준 최저임금 비교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4), 『アジア・オセアニア主要都市地域の投資関連コスト比較』, p. 9.

13) 日本貿易振興機構(2014)에 따르면, 중국 주요도시의 최저임금은 선전 296달러, 상하이 265달러, 광저우 254달러, 베이징 229달러, 칭다오 213달러, 다롄 205달러 수준임.

■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및 시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영환경은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

- 최근 인상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는 추세이고 최저임금 인상시기가 정례화 되었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파업 및 시위가 이전보다 감소할 것이므로 향후 경영환경 자체는 안정될 수 있음.

■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캄보디아 진출기업은 생산성 강화전략을 마련하고 노무관리 전략을 개선해야 함.

- 노동자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시설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최근까지 뚜렷한 생산성 강화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제품 단가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발표된 계획이 아니므로 기업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노력이 우선과제임.
- 공장이전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노무관리 전략 개선을 통해 캄보디아에 보다 현지화 되어야 하고,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캄보디아 노동자의 권리의식 증대를 존중하고 기존 한국식 노사문화가 아닌 현지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무관리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친정부와 반정부 성향의 노조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장에서 활동하는 노조의 성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및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들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 중요함.
- 정부의 정책이 이미 노동자 친화적으로 선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및 법의 변화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한국기업은 전통적으로 캄보디아에 저임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의주시하고 주변국과의 비교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최저임금 인상은 동남아의 지역적 추세이나 최근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기진출 기업 및 관심 기업은 꾸준한 동향 파악과 전략 수립이 요구됨. **KIEP**